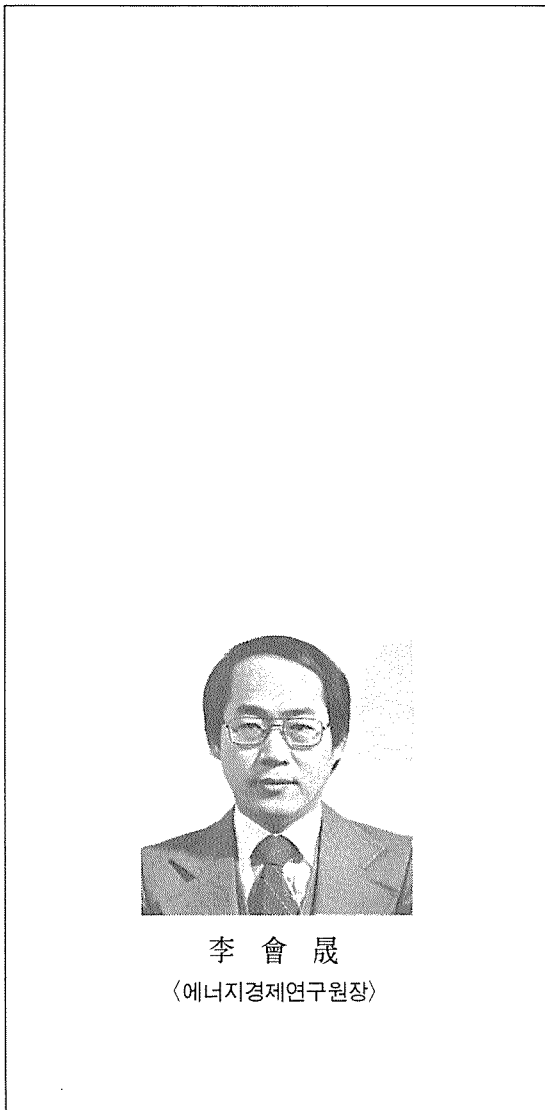


우리나라 에너지산업의 根幹이 되고 있는 石油産業의 건전한 육성과 발전을 도모하고 정유회사간의 이해와 우호를 증진하며 정유사의 입장을 정부와 국민에게 홍보한다는 목적으로 설립된 석유허회의 창립 7주년을 맞이하여, 우선 그간의 활동과 기여에 祝賀를 보내며, 앞으로 더 많은 발전이 있기를 바란다.

石油協會의 새로운 진로



李會晙
(에너지경제연구원장)

이러한 점에서 석유허회가 부여된 임무를 충실하고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목표와 노력이 있어야 할까를 진단해 보는 것은 時宜適切하고 의미있는 일이다. 여기서 우리는 지난 7년간 석유허회가 어떠한 활동을 전개했으며 기대했던 대로 성장하려고 노력해 왔고, 실제로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 주었는지 냉정히 뒤돌아 볼 필요가 있다.

지난날을 회고해 보려는 것은 현재의 처지를 정확히 이해하고 과거의 과오를 반복하지 않으면서 현실의 문제들을 건설적으로 해결하며, 미래를 더욱 바람직하게 창조하기 위해 과거를 올바르게 인식하고자 하는데 있다. 현실은 과거의 所産이며 미래로 이어지는 時·空間의 순간들이다. 오늘날의 현실적 상황과 국내외의 정세, 우리에게 부과된 여러가지 난제들은 과거로부터 연유된 것이기에, 현재의 위치를 올바르게 인식하고, 당면한 난제들을 효율적으로 해결하며, 건전한 미래를 창조하기 위해서는 오늘을 있게 한 과거를 올바르게 인식해야 하기 때문이다.

당초 우리가 석유허회에 기대했던 것은 기본적으로 설립 당시의 취지와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국내외의 여건변화를 무리없이 受容해 가면서 건장하게 성장하는 모습이였다. 설립 당시의 화려한 취지와 원대한 목표에도 불구하고, 많은 수의 협회들이 변화하는 여건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고 뒷걸음질침으로서 存在價値마저 상실한 채 구차하게 延命하고 있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다.

석유는 全量 輸入해 쓰고 있는 에너지인 동시에 1970년대에 일어났던 두차례의 석유파동으로 급격한 가격상승과 石油확보에 대한 불확실성을 증대시킴으로써, 석유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이용이 국가에너지政策의 주요 이슈로 부

6

石油協會는 精油業界를 대표하는 自生團體이다. 따라서 協會는 회원사들의 다양한 의견을 적절히 조화시켜 바람직한 방향으로 조정해 나갈 수 있도록 하고, 조정된 업계의 의견이나 건의를 정부나 국민에게 홍보해야 함은 물론, 정부나 국민의 의견을 업계에 전달하고 이해시키는 일도 중요한 임무중의 하나일 것이다.

9

각되어 있다.

그러면 현재의 국내의 석유시장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는가? 대외적으로는 메이저의 쇠퇴와 OPEC(석유수출국 기구)의 시장 장악에 따른 原油價格의 폭등, 非OPEC의 產油量 증가, 석유수요의 감퇴, OPEC의 결속력 弛緩 등 복합적 요인의 機能回復에 따른 원유가격의 폭락, 유가하락에 따른 석유개발투자의 위축, 산유국의 下流部門 진출확대, 이란·이라크전쟁의 계속 등 시장상황이 불안정한 상태에 있고, 대내적으로는 경제운용을 정부주도형에서 민간주도형으로 전환시켜 민간부문에 대한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석유제품의 輸入自由化와 油價自律化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고 脫石油, 정확히 말해서 脫B-C油정책이 강력히 추진되고 있다. 그 결과 石油製品의 需要輕質化가 가속되고 시설투자 요구가 증대되는 등 우리나라 정유업계는 국내외적으로 많은 난문제들을 해결해야 하는 어려운 시기에 직면해 있다.

석유협회는 정유업계를 대표하는 自生團體이다. 따라서 협회는 회원사들의 다양한 의견을 적절히 조화시켜 바람직한 방향으로 조정해 나갈 수 있도록 하고, 조정된 업계의 의견이나 건의를 정부나 국민에게 홍보해야 함은 물론, 정부나 국민의 의견을 업계에 전달하고 이해시키는 일도 중요한 임무중의 하나일 것이다. 그러면 석유협회가 이러한 임무를 제대로 수행해 왔다고 평가할 수 있겠는가. 정직한 답변은 그렇지 못했다는 것이라다.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에 대한 건의문을 제출하는 것만으로는 주어진 임무를 성실히 수행했다고 할 수 없다. 객관성과 논리성이 결여된 경우가 적지 않음을 볼 수 있다. 이것은 석유협회내에 문제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분석하고, 논리적이고 설득력있는 대응책을 제시할수 있는 전문

가가 없는데서 나온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된다.

定款에 의하면 석유협회의 주요임무는, ① 석유산업과 관련된 국내의 시장情報의 수집, 분석 및 보급, ② 석유산업 시책운영에 도움이 되는 석유업계 의견의 조정, 집약 및 정책제시, ③ 석유산업에 관한 홍보활동으로 되어 있다. 이중에서 국내의 시장정보의 수집, 업계의견의 집약 및 홍보활동은 어느 정도 수행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수집된 정보의 분석과 업계의견의 조정이나 정책제시 등에 대한 활동은 거의 없었다. 「석유협회보」가 時事性있는 석유관련문제를 다루고 있고 「석유연보」는 석유관계자료를 제공하며, 석유관련책자와 통계자료를 발간하고, 年1회 석유세미나를 개최함으로써 石油종사자들에게 많은 기여를 해왔음은 높이 평가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이러한 자료나 책자의 발간과 年1회의 석유세미나 개최로 주어진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했다고 볼 수는 없다.

석유업계가 초기단계의 정유업계 대변기관 역할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석유문제 전문기관으로 발전해야 한다는 요구가 늘어나고 있으며, 이러한 점에서 석유협회의 기능 또한 확대 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욕구를 보다 충실히 충족 시킴은 물론 예견되는 80년대 후반의 난제들을 건설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석유협회가 研究開發활동에 대한 투자를 증가시키지 않으면 안된다. 美國의 석유협회(API)와 같이, 충분한 존재가치를 가지고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권위있는 기구가 있음은 우리에게도 示唆하는 바가 많다.

우리나라의 석유협회가 이러한 수준까지 발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유능한 研究陣의 확보와 양성이 전제되지 않으면 안된다. 유능한 연구진을 확보, 양성하는 일은一朝一夕에 성취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며, 장기간에 걸

쳐 교육되고 훈련되어야 함은 물론 이에 상응하는 예산의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협회는 발전목표를 연구개발분야에 두어야 한다.

장기적으로 볼 때, 연구개발의 성공적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할 단계를 알아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石油를 포함한 에너지관련 데이터의 체계적 정비이다. 모든 연구개발의 기초는 데이터의 체계적 정비에 있다. 아무리 많은 데이터가 존재하더라도 그것이 제대로 정비되어 있지 못하면 효율적인 연구개발을 기할 수 없기 때문이다. 둘째, 데이터의 분석 및 전망기법의 개발이 필요하다. 수집된 정보나 자료는 그 자체만으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수집된 데이터는 신속하고 정확한 분석과 그 분석을 토대로 한 전망이 행해져야 비로서 그 가치를 발휘할 수 있음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정확한 분석과 전망을 위해서는 현존하는 분석기법의 활용뿐만 아니라 새로운 기법의 개발에 대해서도 노력하지 않으면 안된다. 셋째, 기술 및 정책분석기법의 完備이다. 우리나라의 석유업은 기술면에서 매우 단순한 공정을 가지고 있으나, 수요패턴의 변화 즉, 石油소비의 경질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기술의 개발이 요구되며, 또한 석유산업은 국가의 기간산업인 동시에 原油를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우리나라의 경제정책뿐만 아니라 석유수출국들의 석유정책에 대해서도 대응할 수 있는 정확한 정책분석이 행해져야 한다. 이를 위해 협회는 기술 및 정책을 보다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는 기법을 완비하고 있어야 할 것이다. 넷째, 정부의 정책자문에 응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석유산업이 정부정책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석유협회는 보다 적극적으로 정책자문 및 수립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바람직하다. 전문 분석팀의 구성과 양성이 시급한 실정이다.

석유문제만큼 많은 사람의 관심을 끄는 것도 없는 반면에 이 문제만큼 전문가가 부족하고 양성기관이 없는 분야도 드물다. 정책의 합리적인 추구하고 국민경제의 이익에 부

응할 수 있는 미래의 석유산업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협회가 앞장서서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와 전문가 양성에 많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 분야에 적극적 투자가 이루어 질 때 협회의 발전은 물론 석유산업의 발전도 더욱 가속화될 것이다.

석유협회가 전문적인 연구 능력을 구비하고 있을 때, 석유협회는 회원사간의 의견조정에서 있어 강력한 힘을 갖게 되고, 명실상부한 업계의 입과 귀의 역할을 다 할 수 있을 것이다. 석유협회에 대해 걸고 있는 기대는 이해당사자간에 많은 차이가 있게 마련이다. 이러한 다양한 기대를 모두 충족시켜 준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나, 주어진 여건하에 최대치를 찾아내도록 해야 하는데도 연구능력의 완비는 필수적이다.

협회의 운영은 전적으로 회원사의 회비에 의해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예산상의 제약이 있다. 따라서 협회는 활동영역이 극히 제한적이며 정유사만의 단기이익에 치중하게 되고, 정유사의 장기적인 발전전략의 수립이나 회원사간의 심각한 이견조정에는 객관적이고 논리적인 역할을 못하고 있다.

예산상의 이유로 전문인력의 확보와 양성이 곤란하다면 차선책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협회내에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를 운영하는 일이 될 것이다. 석유업계와 관련된 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위원회를 소집하고 여기서 수립된 의견을 토대로 정책건의를 한다면 정유사간의 이견조정은 물론 對國民 홍보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

끝으로 석유협회가 보다 건장하게 발전하기 위해서는 정유사와 정부가 다같이 노력해야 한다. 현재 석유협회에는 석유제품의 수출입추천권이 주어져 있으나 이외에 油價조정도 일차적으로 석유협회에서 하고, 조정된 안을 정부에 제출하면 이를 정부에서 구성하는 油價조정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하는 방식이 보다 효과적이고, 油價조정에 대한 국민의 오해도 불식시킬 수 있을 것이다. □

